

■ 제주4·3 평화·인권교육 현장 / 강춘희 명예교사가 들려준 70여 년의 아픔

“온 가족 잃고 모진 세월 눈물로 살아”

제주중학교서 ‘용서함은 평화의 시작’ 주제로 강의 “4·3은 한 가정만이 아닌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역사”

“제주 4·3은 우리 가정만의 역사가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였고, 제주도의 역사는 한 섬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였다.” 중학생들 앞에 선 강춘희 할머니는 담담하지만 힘 있는 어조로 말했다.

27일 제주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제주4·3의 교훈을 후세들에게 전승하는 ‘4·3평화·인권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수업에 나선 강춘희(77)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는 ‘용서함은 평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4·3 당시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생생히 설명했다.

강 교사는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에서 태어났다. 연미마을 동장을 지낸 할아버지와 할머니, 농업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섯 식구였다고 한다.

4·3 당시 서북청년단과 토벌대가 마을을 오가며 젊은 청년들을 찾아다니자 강 교사의 할아버지는 집 천장과 마루 아래 등에 젊은이들을 숨겨줬고, 이 사실이 발각돼 청년들과 함께 잡혀가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뒤 행방불명됐다.

아버지 역시 학교를 다니는 길에 누군가가 조사를 하겠다고 데려간 뒤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고

‘오라리 방화사건’ 이후 민오름 인근에 숨어 살다 태어난 남동생도 주정공장에서 몽둥이에 맞아 크게 다쳐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4·3으로 인해 온 가족을 잃고 엄동설한 같은 77년의 세월을 눈물로 살았다”며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열심히 공부해 4·3에 대해 알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교사의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던 학생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뿜기도 하며 제주4·3을 가까이에서 공감하고 있었다.

강 교사는 “나에게는 3가지 소원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아버지의 생사 확인, 남동생의 희생자 등록이 그것이었다”며 “지난해 3월 할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동생도 희생자로 결정돼 제74회 추념식이 너무도 기쁜 추념식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분도 마음에 품이 있다면 이를 수 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튼튼한 대한민국의 청년들

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강동현 군은 “4·3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슬펐고 유족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며 “우리나라 사람이 가나가지고 폭력을 저지른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할머니네 가족에게 생긴 일이 안타까웠다”고 수업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4·3 명예교사제를 신청한 6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4·3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명예교사와 함께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강춘희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가 27일 제주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3 당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넓어지는 도로 보행자 안전은 어디에”

제주시, 제주대 입구~금천마을 도로 확장 공사 주민들 경사로 지점 성토 놓고 “보행 위험” 주장

제주대 입구와 금천마을을 잇는 도로 확장 사업을 놓고 공사 완료 시 일부 구간에서 보행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사업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총 75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길이 2.17km, 폭 15m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다. 제주시에서는 “출퇴근길 차량이 늘고 있고 차들이 마주 오가기 어려워 도로를 넓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곳”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 금천마을 방면 곡선으로 굽은 경사로 구간 공사가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획상 해당 도로와 바로 옆 땅의 높낮이 차이가 커서 보행자 추락 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 모씨는 “도로 경사도 때문에 흙을 쌓는 성토를 하는데, 그 높이가 내 키보다 높다. 만일 이대로 도로가 만들어지면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도로 바로 옆이 낭떠러지처럼 똑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리다 예산만



한 주민이 금천마을 경사로 방면의 성토 공사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전선희기자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형을 반영해 경사도를 최대한 조정하는 등 최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정 지점만 보면 안 된다. 그간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지점의 성토 높이를 1.7m에서 40cm 낮췄다. 한 지점에서 성토와 절토 높이를 조정하면 다른 지점에서 2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사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인도 난간 설치 등 보행에 위험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차별 그대로 방치... 31일 총파업”

학교비정규직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 제주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나선다. 학교 급식, 돌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연대회의는 27일 제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개월 장기기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 비정규직 집단임금 교섭은 타결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며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날로부터 5년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필요 시 사업내용 추가 및 협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이날로 도교육청 앞에서 5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회견에서 “사용자 측

은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분위기에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시하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노동개혁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을 희생 삼아 더 이상 교육 복지를 유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공사대금 수억원 가로챈 건축업자 실태

제주지역에서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겠다고 속어 1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가로챈 건축업자에게 실태가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타운하우스

신축과 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피해자들과 30억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씨월드고속훼리 4월부터 4·3 유족 운임 30% 감면

씨월드고속훼리가 4월 1일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여객 운임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씨월드고속훼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4월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를 기점

으로 진도, 우수영, 목포에 출항하는 등 총 4척의 여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내용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여객선 운임 30% 감면으로, 성수기 및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필요 시 사업내용 추가 및 협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만개) 허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년 01-0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진,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귤	3년생
진지향	3년생
탕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우), 황금향, 원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탕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